

女高生 校服 디자인 研究

尹賢貞*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專攻 教授

A Study on High School Girls' Uniform Designs in Korea

Yoon, Hyun-Jung* and Cho, Kyu-Hwa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presenting desirable design of uniform which could reflect high school girls' demands with the researches on their consciousness of fashion and actual state of uniforms. Methods to accomplish this research include first, examination on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girls and their consciousness of fashion with relevant articles, second, interviews with designers from major domestic uniform brands - ELITE, IVY, SMART - and third, analysis on related internet sites. Practical researches are followed by design analysis and proposal of improvement on high school girls' uniform, accompanied by collection of photographs from field studies, major uniform brands' shops and uniform related internet sites. Korean high school girls in the digital era are able to express themselves in each different fashion with own individuality, preference or intention, as they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clothes or their appearances. Their consciousness of fashion became visible in a shape of negative attitude and dissatisfaction with uniforms due to its out-of-date design, lack of features and inconvenience in action. Besides more than half of high school girls already experienced reforming it for better looks.

As a result of current analysis on references of uniform designs, various levels of refinement were noticed even in uniform of similar details, design, fabric textile and color due to differences on size & length of jacket collar, dart, cutting line, size of details, decorative line, easiness in fit, length of clothes, and etc. To provide students of more refined and desired designs which reflect their demands, current uniforms are to begin acquiring delicate changes with present vogue and feature such as size of details, silhouette, cutting line, decorative line and etc. In addition newly designed uniforms are to present desirable design with image of refinement and neat as they actively comprehend students' needs within its symbolic, functional, economic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nature.

Key words: consciousness of fashion(패션 의식), brand(상표), digital era(디지털 시대), uniform(제복=制服)

I. 서론

교복이란 면학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만든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으로 단체 생활을 원활히 하고 신분과 소속감·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된다. 교복 자율화 이후 1985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40개교가 교복을 다시 입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전국 중·고교의 95%가 교복을 입게 됨¹⁾으로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고생들이 최근 교복을 다시 입게 되었다.

여고생들은 인터넷과 PC통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세대로 정보의 접촉도가 높으며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다. 또한 좋아하는 것이 확실하며 저마다의 개성과 취향으로 의복이나 외모에 큰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며 기호에 맞는 각기 다른 패션으로 자신들을 표현할 줄 아는 세대이다.

교복을 다시 입기 시작한 이후 감성적인 여고생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만의 표출은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교복을 고쳐 입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지는 여고생 교복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의상 심리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의 감각에 어울리는 교복 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복 변천사를 통하여 교복 디자인의 변화 과정과 의의를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을 간단히 제시하고 현재 입고 있는 교복 디자인의 사례 분석과 여고생의 패션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이들의 욕구가 수용된 바람직한 교복 디자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새로운 교복 디자인을 하여 이를 실물로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여고생의 특성과 패션의식에 관한 문헌 연구, 국내 학생복 유명 브랜드(ELITE, IVY, SMART) 등의 학생복 디자이너와의 인터뷰, 각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를 통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 교복 업체 비치 교복, 동대문에서의 사진촬영, 인터넷 사이트, 패션잡지 등의 시각 자료를 가지고 교복에 관한 실제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여고생 교복 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교복의 변천사

1) 우리나라의 교복

우리나라에서 교복은 1886년 8월 스크랜톤(Mrs. M. F. Scranton) 여사가 이화 학당을 설립하고 곧 한국풍 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하여 상·하 다홍색으로 정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 교복의 효시가 되었다²⁾(그림 1).

1907년 숙명 등의 여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생 양장교복을 입기 시작했다. 숙명의 이 교복은 유행의 최첨단을 걷던 것으로 1910년 한일합방 직후 한복 붐이 일 때까지 3~4년간 계속 입게 되었다³⁾. 한일합방 후 1911년부터는 여학생들은 쓰개치마를 입지 않았지만 애국심의 표현으로 양장 교복을 다시 한복교복으로 입게 되었다. 1922년 이후에는 획일적인 교복을 입다가 1930년대에 와서 일제는 한국고유의 풍습을 없애려고 한복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여 세일러복이 여학생의 교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⁴⁾(그림 2).

1951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각 3년으로 학제 개편이 실행되면서 각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형태가 제정되었다(그림 3). 남·여 중학생의 교복 중 동복과 교모는 해방 이후에도 변함없이 입다가 1969년 평준화와 함께 서울시내 전체의 남·여중학교 교복이 통일되었다⁵⁾.

1983년 신학기부터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은 종래의 획일적인 교복에서 벗어나 자유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자율화 조치이후 두발과 복장에서 자율화에 따른 자율의식은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까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반면에, 학생의 고급 사복착用に 따른 위화감 조성 등 일부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사치풍조가 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비행이 점차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⁶⁾는 여론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이 교복을 다시 입고자 하였다. 이 여론을 반영해 1985년 10월 교복 자율화 보완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40개교가 교복을 입기 실시하게 되었다⁷⁾.

1985년 10월 교복 자율화 보완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40개의 중·고교가 교복을 입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76%, 1999년에는 95% 이상의 학교가 교복을 입게 되었다⁸⁾. 교복 다시 입게 된 초기에는 교복의 활동성 및 학생의 품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미적인 면에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교복 브랜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채택되는 교복은 이전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유행을 가미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다. 즉, 종래의 교복이 어떤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통제성은 물론 심미성이 고려되어지고 있다.

2) 외국의 교복

교복을 언제부터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사시 학생들을 군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통일된 제복을 입힌 것을 최초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복이라 할 수 없으며 정확히는 영국의 이튼 칼리지(Eton College)에서 교복의 시초를 살필 수 있다. 이 교복은 처음에는 재킷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었지만 1820년 조지 3세(George III, 1738~1820)의 장례식을 계기로 검은색으로 되었는데 허리까지 오는 짧은 것이었다. 재킷 속에는 조끼를 입고 넓은 흰색 플랫 칼라(flat collar)가 달린 셔츠에 재킷과 같은 색의 넥타이를 댔다. 하의는 주로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를 입고 운동가 높은 검은색 실크해트를 썼다. 이 교복을 시초로 서양 각국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복을 입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유럽풍의 교육을 추종하는 명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복을 입고 있다⁹⁾.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으면서 패션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일본 여고생의 교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소녀들이 본격적으로 교복을 입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 도쿄의 여러 명문 사립여자학교에서 학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복을 만들면서부터이다¹⁰⁾. 일본 교복의 기원은 메이지 4년인 1871년이며 1980년대 중반부터 무릎 위 길이에 갖가지 색깔의 체크무늬 스커트, 여기에 하이삭스라는 스타일이 도쿄에 대거 등장하게 되

어 교복변화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문학교의 교복의 유행시 유행과 독자성이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1991년쯤에는 그들의 대표적 유행이었던 짧은 스커트 길이가 극도로 짧아지는 일반고교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쭈글쭈글한 주름투성이 양말'이라는 뜻의 '쿠슈쿠슈 삭스'가 루즈삭스로 이름을 바꾸어 상품화되면서 도쿄의 여고생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1992년쯤에는 도쿄의 거의 모든 여고생들이 루즈삭스를 신게 되었다. 그 후 스커트가 점차 짧아지면서 유행시의 주도권은 명문여고에서 일반고교로 완전히 옮겨갔다. 전차 안에서 버젓하게 슈퍼삭스에 초미니스커트 차림을 한 여고생이 화제를 모을 때, 도쿄여학관이나 아오야마학원의 여학생들은 평범한 미니스커트에 좀 긴 루즈삭스 차림의 어딘가 보수적인 모습으로 그다지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명문학교의 이름과 교복의 매력으로 캐릭터를 겨루던 시대는 가고 '여고생'이란 브랜드 이미지 아래, 시부야여고를 대표로 하는 균일화된 옷차림 자체가 마치 그 교복처럼 도쿄에서 유행하고 있다¹¹⁾(그림 4).

2 여고생의 특성과 패션의식

여고생은 시기적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청소년기(Adolescence)'란 성장 또는 성숙을 의미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이때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중간 시기로서 성장에도 급격한 발달을 보여 신체는 점점 더 성인의 특징을 갖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12~13세에서부터 20~21세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를 다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에 준하여 청소년 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거나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t, 12~15세), 청소년 후기(adolescents, 15~20세)로 구분하기도 한다¹²⁾.

1)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

'제2의 신체발육 급증기(growth spurt)'라 부르는 여고시기의 신체적 발달은 빠른 성장속도와 성적 발달

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의 여고생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신체 매력성이나 체형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며 따라서 외모와 의복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¹³⁾.

여고시기는 동료집단의 구성원과 유사하게 보일 때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강화하게 되므로 패션에 있어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 동시에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청소년 복식문화를 형성하는 특성으로 획일적으로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표현하는 패션의 다양화가 시도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¹⁴⁾. 따라서 이 시기에는 패션에 있어 '동조 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2) 여고생의 패션의식

최근 우리나라 여고생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컴퓨터 보유율(84%)과 인터넷 사용시간(172.3분/일), 이동전화 소유율(52.1%)에서 밝힌 바¹⁵⁾와 같이 이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네트워크(network) 세대이다. TV라는 매체만을 접하고 성장한 베이비 부머(baby boomer)¹⁶⁾와 베이비 버스트(baby bust)¹⁷⁾세대와는 달리 다양하고 획기적인 대중매체 특히, 디지털 매체로의 노출은 이들을 고정된 틀이 아닌 자유분방함을 지니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감과 자립심이 강한 세대로 만들었다¹⁸⁾.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여고생의 패션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여고생은 이미지와 감각,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비주일세대, 감성세대¹⁹⁾로서 패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패션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이는 패션이 자기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의 최신 정보를 패션의 중심지와 동시에 보고 느끼며 유행을 빨리 받아들임과 동시에 새로운 감각의 패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움과 재미를 우선으로 하는 세대로 패션에 있어서도 단순히 '입는다'는 개념보다 '놀이 수단', '의사의 표현'으로 여기는 캐주얼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패션의식을 지니고 있다²⁰⁾.

이러한 패션의식을 지닌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대기업의 학생복 브랜드들은 '디자이너가 만든 학생복'²¹⁾, 'N세대의 감각비례'²²⁾,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²³⁾, '쭉쭉 빵빵'²⁴⁾, '그냥 느낌이지 뭐'²⁵⁾ 등의 컨셉트로 각각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그림 5), TV를 통한 유명 연예인의 CF광고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이들의 온라인(on-line) 접촉으로 이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그림 6).

이와 같이 여고시기에 보여지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패션의식은 서로 상호작용 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고생의 패션의식을 이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여고생의 교복에 대한 패션의식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²⁶⁾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해 교복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어서 교복 디자인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교복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개해 나감으로서 여고생의 교복에 대한 패션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복 착용에 대한 태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교복 착용에 대한 태도'²⁷⁾는 지금보다 규제를 줄인다면 찬성한다(52.2%), 현재 상태를 찬성한다(27.2%)로 나타났는데, '교복 불만 이유'²⁸⁾로는 디자인이 촌스럽다(32.9%)가 가장 많았으며 가격이 비싸다(14.9%), 개성이 없다(14.7%), 색깔이 칙칙하다(12.7%)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교복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 수선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48%)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여자(60.1%)와 고등학생(60.7%)의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복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는데 주요인은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었다.

2) 교복 선호 스타일

타이트 스커트가 활동적인 면에서 부적합하나 교복

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설문 조사 당시(1997)의 기성복 트렌드가 피트한 실루엣 이었던 때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유행이 가미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고생의 특성과 패션의식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여고생들은 미적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 '교복을 고쳐 입는 실태를 강남과 강북으로 분류'²⁹⁾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여고생의 경우 강남 지역의 교복 수선 빈도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공학, 강남은 스커트 길이를 줄이는 현상을, 강북은 스커트의 품과 길이를 줄이는 실태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복은 기성복의 유행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지역이 유행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교복 관계자와의 면담³⁰⁾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 약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그 경향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도 크게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표 2>와 같은 스타일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강남의 교복은 유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있다. 이에 비해 강북 및 경기 북부 외곽 지역의 교복은 유행의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교복 유행 경향을 지방의 학생들이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사료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강북 및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교복이 아닌 일반 의복에서 자신들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상기 지역은 그에 비해 그들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 교복을 통해 이들의 패션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최근 교복의 디자인은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은 조끼에서 활동적인 니트 소재의 착용을 선호하고 있어 니트 조끼를 입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

<표 2> 지역에 따른 교복 수선 형태

	강 남	강 북
여 고	• 스커트 길이만 짧게	• 블라우스 품을 좁게 • 스커트 품을 좁게, 길이를 짧게

난다³¹⁾.

스커트의 경우 H라인의 플리츠 스커트가 가장 많이 입혀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A라인의 스커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플레어 스커트의 경우 그보다는 폭이 더 좁은 A라인 스커트로의 교복을 유행에 맞춰 고쳐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낯선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이들의 패션의식이 교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7, 8).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은 테일러드 칼라에 홀 여밈 재킷, 셔츠 칼라 블라우스, 타이트와 플리츠 또는 A라인의 스커트로, 교복 수선 사례를 통해 낯선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와 단정한 이미지의 교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³²⁾.

3) 교복 선호 색상 및 소재

선호하는 슈트 색상은 청색계통, 검정색, 회색이며, 블라우스는 흰색 등 무난한 색상으로 나타난다³³⁾.

교복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³⁴⁾에 의하면 이전의 교복 색상은 주로 톤이 밝은 감색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요즘의 교복 색상을 보면 감색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색상 톤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짙은, 즉, 검정에 더욱 가까워진 어두운 감색이 쓰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내에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한 학교의 교복들은 회색이 유행했던 때와 맞물려 회색을 채택해, 회색이 감색과 함께 교복의 주요한 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블라우스의 경우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교복을 다시 입게 된 초창기의 블라우스 색상은

<표 1> 교복 선호 스타일

출처: 박영애(1997). p. 78

	재킷	조끼	스커트	블라우스
1997년 조사 연구에 따른 선호 스타일	• 테일러드 칼라 • 홀 여밈	• 목이 깊게 파인 홀 여밈	• 타이트 스커트 • 플리츠 스커트	• 셔츠 칼라

형광 백색이라고 하여 실용적이기는 하나 심미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색상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의 블라우스는 대부분 스노우 화이트(snow-white)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흰색이 많이 쓰이고 있다.

동복 재킷 소재는 대부분 모와 폴리에스테르 1:1 내지는 모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혼방을, 하복 블라우스는 T/C와 T/R, 스커트는 T/W가 쓰이고 있다.

4) 교복에 대한 불만도

교복 착용시 단점에 관한 조사에서 ‘교복을 입는 것이 불편하냐’³⁹⁾는 질문에 과반수가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유로는 ① 활동이 불편하다, ② 기온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였으며, 불편한 부분으로는 ① 어깨 및 소매, ② 허리, ③ 목둘레 주변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이 불편한 경우’⁴⁰⁾로 ① 앉아 있을 때, ② 몸을 굽힐 때가 불편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타이트 스커트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경우이며, 플레어 스커트의 경우 스커트의 폭이 넓어 걸을 때 다리에 감기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교복 수선 현황’⁴¹⁾에서 수선 경험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선의 이유로 ① 사이즈가 너무 커서, ② 바느질한 곳이 떨어져서, ③ 유행에 맞게 입으려고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⁴²⁾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웃이 크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고 싶어서’, 혹은 ‘모범생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규율을 벗어나고 싶어서’, ‘반항심리 때문’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교복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복장으로서 학창시절의 낭만을 느끼게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는 여고생들이 유행을 의식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패션의식이 교복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즉, 교복 착용시 불만 사항으로 활동이 불편함을 들고 있어 캐주얼한 스타일이 요구되며, 교복 디자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 수선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5) 기타

‘교복의 가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매받지 않는다

는 응답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데, 교복 판매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한 상품구매 현황에 따르면 재킷을 한 벌 더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분의 블라우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60%를 넘는다고 한다.

‘교복 선정 방법’⁴³⁾으로 몇 가지 디자인과 색상을 제시해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자에 74.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복 선정에서 학생들 자신의 자유스러운 선택의 기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 학교에서 교복 선정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의 여고생들은 의복 구매시 광고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여러 브랜드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아이템별로 저렴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구매⁴⁴⁾하는 능동적, 합리적 소비 경향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조사 결과 교복을 다시 입은 이후 교복에 대한 여고생들의 태도는 주로 부정적 이었으며 이유는 ‘교복 디자인이 촌스럽다’, ‘개성이 없다’, ‘활동이 불편하다’ 등 이었다.

교복을 수선하는 학생 중 예쁘게 하기 위해 수선해본 경험이 있는 여고생의 숫자는 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고생들은 세련성과 활동성을 갖춘 단정한 이미지의 교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교복 디자인의 실제적 연구

1.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의 디자인 사례 분석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 디자인 사례 분석 대상은 업체 관계자들이 추천해주는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들로 동복은 서울 8벌, 광주 9벌, 대구와 목포 각 3벌, 경기, 부산, 구미 지역의 학생복 각 1벌이며, 하복은 서울 36벌, 대전 7벌, 광주 6벌, 인천 2벌 전주와 제주 지역의 학생복 각 1벌이다.

이를 계절, 아이템, 디자인 포인트 별로 분류하여 종합·분석함으로써 현재 입혀지고 있는 교복 디자인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는 어느 정도 매치 되는



<그림 1> 1922년 이화학당의 학생 (정충량(1967), 『梨花八十年史』, 서울: 이대출판사)



<그림 2> 1932년경 일본 수화여행 (淑明女子中 · 高等學校(1976), 『淑明七十年史』, 서울: 淑明女子中 · 高等學校)



<그림 3> 1962년 서예반원들 (사진으로 보는 경기여고 90년 간행위원회(1998), 『사진으로 보는 경기여고 90년 : 1908-1998』, 서울: 경운회)



<그림 4> 일본 여학교의 교복 변천사 (김명학(1999)『나, 일본 여고생』, 서울 : 이채)



<그림 5> 교복 브랜드화 시대의 학생복 광고 (스마트 학생복 CF, 2001. 8.)



<그림 6> 디지털 시대의 N세대 (스피드 011 - n.Top, 2001. 4.)



<그림 7> 교복 변형 사례 1 : 재킷의 길이를 줄이고(왼쪽), 스커트의 플레어 폭을 줄임 (오른쪽) (동대문 밀리오레 앞. 2001.10.)



<그림 8> 교복 변형 사례 2 : 재킷의 길이와 품을 줄이고 스커트의 길이를 늘림(양쪽) (동대문밀리오레앞. 2001.10.)



<그림 9> 테일러드 칼라/홀 여밈 칼라의 학생복, 화정고 (경기)



<그림 10> 테일러드 칼라/겹여밈 재킷의 학생복, 광주 여상



<그림 11> 홀 여밈 세 개 단추 재킷의 학생복, 안양영화예고



<그림 12> 홀 여밈 한 개 단추 재킷의 학생복, 광주예고



<그림 13> 겹여밈 조끼의 학생복, 이화여자외고 (서울)



<그림 14> 홀 여밈 조끼의 학생복, 시지고 (대구)



<그림 15> 홀 여밈 세 개 단추 조끼의 학생복, 한국예고(서울)



<그림 16> 단추 위치가 포인트인 조끼의 학생복, 안양영화예고



<그림 17> 니트 조끼의 학생복, 전남제일정보고 (목포)



<그림 18> 스텐 칼라 블라우스의 학생복, 광영여고(서울)



<그림 19> 컨버터블 칼라 블라우스의 학생복, 영광여자정보고(서울)



<그림 20> 윙 칼라 블라우스의 학생복, 대전관저고



<그림 21> 칼라가 포인트인 블라우스의 학생복, 숙명여고(서울)



<그림 22> 베이직한 스타일의 블라우스 학생복 이화사범대학부속고(서울)



<그림 23> 타이 장식 블라우스의 학생복, 영광여고(서울)

지 알아봄과 동시에 각 디자인에 따른 세련성 및 분위기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복 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교복 재킷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테일러드 칼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복에 대한 패션의식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난한 스타일로 이전의 교복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킷에 적당한 여유가 있는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9~12).

각 시기의 유행에 따라 여밈(홀 여밈, 겹 여밈), 칼라의 크기와 모양(피크드 칼라 등), 재킷의 길이 단추의 위치에 약간의 변화를 가미해도 좋으리라 보인다.

재킷의 칼라가 작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최근의

패션 트렌드와 맞물린 무난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끼는 겹여밈이 선호도가 낮음에도 여전히 무난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그림 11, 13).

학생복의 조끼 디자인을 살펴보면 각 시기의 유행에 따라 어깨너비와 단추 위치의 변화, 네크라인의 모양과 파임을 조절함으로 세련성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재단선의 변화에 따른 실루엣에 변화를 줌으로 훨씬 날씬 해 보일 수 있으며 캐주얼한 교복 디자인의 요구와 함께 니트 소재를 이용한 교복 조끼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 16, 17).

학생복 블라우스는 디자인 자체에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대부분 파스텔 계열 색조의 블라우스에 약간의

<표 3> 아이템별로 본 여고생 교복 디자인

	춘·추·동복	하복
재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일러드 칼라, 홀 여밈 재킷 • 테일러드 칼라, 겹 여밈 재킷 • 홀 여밈, 1~4 개 단추 재킷 • 소재 패턴 : 체크무늬, 무늬 없음 • 소재 : 캐시미어 혼방 • 색상 : 감색, 자주색, 주홍색, 파란색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 여밈, 네 개 단추 조끼 • 겹 여밈, 2~6 개 단추 조끼 • 단추 위치에 포인트를 둔 조끼 • 네크라인 : 브이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 라인, 스퀘프트 네크라인, 오 벌 네크라인, 다이아몬드 네크 라인 • 소재 패턴 : 체크무늬, 무늬 없음 • 소재 : T/W • 색상 : 감색, 회색, 주홍색, 황토색, 파란색, 녹색 ※ 니트 소재의 풀오버 조끼도 나타남 	
스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커트 :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 라인 : A라인, H라인 • 소재 패턴 : 체크무늬, 무늬 없음 • 소재 : T/W • 색상 : 감색, 회색, 주홍색, 황토색, 파란색, 녹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커트 :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 실루엣 : A라인, H라인 • 소재 패턴 : 체크무늬, 무늬 없음 • 소재 : T/W • 색상 : 회색, 감색, 파란색, 조홍색
블라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 : 셔츠 칼라, 모트 칼라 • 소재 : T/C, T/R • 색상 : 흰색, 연분홍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 : 셔츠 칼라, 컨버터블 칼라, 데일 러드 칼라, 윙 칼라, 세일러 칼라, 턴-다운 칼라 • 소재 : T/C, T/R • 색상 : 흰색, 연분홍색, 하늘색

의 장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학생복 블라우스의 칼라 끝을 스커트와 동일한 색의 바이어스 테이프로 처리함으로 도드라지지 않는 흰색 칼라에 포인트를 주었다. 또는 칼라와 함께 소매 부분에 다른 색의 천으로 파이핑, 바이어스, 바인딩 등의 처리로 정리하여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윙 칼라의 블라우스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그룹은 주로 칼라 전체의 색을 몸판과 다른색의 천으로 하거나 칼라 끝을 다른 색으로 장식함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그림 18~20).

하복 블라우스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포인트를 주로 칼라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칼라 자체의 디자인을 변형시키거나 칼라를 몸판과 다른색의 천으로 배색함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칼라들의 경우 유행에 따라 칼라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직물 자체의 채도 등에 변화를 줌으로 세련된 교복 디자인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보인다(그림 21). 베이직한 흰색계열의 하복 블라우스가 점퍼스커트와 매치됨으로 발달하며 유행의 영향을 덜 받는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베이직한 블라우스를 파스텔 색상으로 하여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타이어를 장식함으로 단정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스커트의 체크무늬는 세련된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그림 22, 23).

현재 입혀지고 있는 교복 디자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에 홀·겹 여밈, 조끼도 홀·겹 여밈에 다양한 형태의 네크라인으로 나타났으며, 스커트는 H와 A라인의 플리츠 스커트, 동복 블라우스의 칼라는 셔츠칼라가 대부분이며 하복 블라우스는 셔츠 칼라 외에도 세일러 칼라 등 다양한 칼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킷, 조끼, 스커트의 색상은 주로 감색과 회색, 소재 패턴은 무늬가 없거나 체크무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교에 따른 상징으로 엠블럼과 펜던트 장식 등이 있으며, 넥타이 장식은 기본 넥타이와 리본이 변형된 여러 형태의 타이 장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디테일과 색상임에도 재킷 칼라의 크기와 길이, 다트와 재단선, 디테일의 크기와 장식선, 여유분과 옷 길이 등의 차이에 따라 같은 디자인, 소재, 색상의 교복도 세련됨이 다르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의 디자인 개선 방향

교복 디자인의 사례를 통한 디자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입혀지고 있는 교복들은 소재의 색상, 톤의 기본 스타일을 가지고 디테일의 크기와 품의 여유분, 장식 등을 각 시기의 유행에 따라 약간씩 변화시킴으로 세련성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기존에 입혀지고 있는 교복들에 대해서는 <표 4>와

<표 4> 기존의 여고생 교복 디자인의 유행에 따른 디테일 변화 방법

	동 복	하 복
재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와 라펠의 크기 조절 • 길이와 품의 여유분을 조절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와 품의 여유분 조절 • 다트와 재단선의 변화 • 단추의 개수 및 위치 변화 	
스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와 라인의 변화 • 플리츠 개수 및 위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조절 • 라인의 변화 • 플리츠 개수 및 위치 변화
블라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과 소매의 여유분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 주머니의 크기 조절 • 다트의 개수 • 분량 조절 • 포인트를 주는 바인딩 및 바이어스 테이프의 넓이 조절

같이 유행에 따라 디테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제시되는 교복들은 기본적인 디자인은 여고생의 교복에 대한 패션의식에서 나타났듯이 학생과 교사가 선호하는 테일러드 칼라에 홀 여밈 재킷, 플리츠·플라이어 스커트, 색상은 감색과 검정색 등으로 하여 무난한 디자인을 제시하되 부분적으로 유행을 가미함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세련되고 바람직한 디자인의 교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IV. 교복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실물 제작

1. 디자인 기획(I, II)

1) 컨셉 (Concept)

- 테마(Theme): 'neat & cheerful'
- 시즌(Season): spring, fall, winter/summer

최근의 정보화 세대로 감성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이들은 패션성, 기능성, 실용성, 경제성을 동시에 강조한 스타일을 지향한다.

'neat & cheerful'은 적당한 맞음새와 형태감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깔끔한 디테일 및 포인트를 주어 발랄함이 가미된 세련되고 단정하며 활동적인 교복을 시도한다.

교복은 일반적으로 춘·추·동복, 하복 두 가지로 구분하여 착용·구매하고 있으므로 두가지 디자인으로 사계절을 모두 포함시킨다.

2) 컨셉트 맵 Concept map)(그림 24)

3) 타겟 (Target)

- (1) 연령 및 직업: 10대 중·후반의 여고생
- (2) 특징: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자신을 표현할 줄 알며 시기에 따른 유행 및 스타일을 중시하는 감성세대이다.

4) 디자인과 색상 (Design & Color)

여고생은 교복이 단정함과 동시에 활동적이고 유행이 가미됨으로 세련성을 갖춘 바람직한 교복 패션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선호도가 높게 나왔던 디테일에 적당한 여유분을 준 아우어글래스(hourglass silhouette) 실루엣으로 하여 이 시기의 독특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느낌의 발랄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색상은 톤이 짙은 감색과 스노우 화이트(snow-white)를 사용함으로 세련성과 실용성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5) 소재 (Fabric)

심미적인 면을 중시하는 여고생의 욕구를 감안함과 동시에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소재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고생은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는 항상 교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천연소재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교복 소재 선호도에서도 혼방 소재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재는 캐시미어, 개버딘, T/W, T/C의 혼방 소재들로 선정하여 보온성, 쾌적성, 내구성 및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2. 실물제작

- 1) 춘·추 동복(재킷-캐시미어(울/폴리에스테르=80/20), 스커트-T/W(울/폴리에스테르=50/50))(그림 25)

춘·추·동복의 디자인은 재킷의 길이가 짧고 세개 단추가 달린 재킷, 조끼, 스커트, 블라우스의 투피스 스타일이며 색상은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짙은 감색이다. 그리고 블라우스는 셔츠 칼라, 스커트는 전체에 플리츠를 고루 분산시킨 A라인으로 활동성과 발랄함을 가미한 디자인이다.

재킷의 포켓에 부착된 빨간색의 고무 와펜과 스커트 전체의 플리츠가 발랄함을 연출한다.

- 2) 하복(블라우스-T/C(면/폴리에스테르=35/65), 스커트-T/W(울/폴리에스테르=50/50))(그림 26)

하복 디자인은 세일러 칼라의 블라우스와 A라인 플



<그림 24> 'neat & cheerful'의 컨셉트 맵



<그림 25> 훌 여임 세 개 단추 단추 재킷과 박스 플리츠 스커트의 슈트



<그림 26> 세일러 칼라 블라우스와 A라인 플리츠 스커트

리츠 스커트의 투피스이다. 블라우스는 일반적인 세일러복에 본 천을 이용한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로 포인트를 주어 단정함을 더하였다. 블라우스는 허리 부분에 각 2개씩의 다트를 주어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을 만들어 줌으로 이들의 미적 욕구가 고려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스커트는 여고생들이 선호하는 A라인으로 활동적이고 심미적인 면을 중시하는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플리츠 대신 사다리꼴의 플리츠로서 전체적으로는 A라인의 실루엣을 형성하는데, 이는 체형을 감싸고 다리를 날씬해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발랄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색상은 다듬어진 세련된 느낌의 단정한 교복 패션을 위한 색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검정과 청색을 믹스시킨 짙은 감색, 블라우스는 흰색을 사용하여 여고생의 욕구가 반영된 세련되고 활동적이며 단정한 이미지의 교복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교복을 다시 입게 된 이후 이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입고 있지만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이었고 가장 큰 이유는 교복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고생의 특성과 패션의식을 연구한 결과 여고생은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과 스타일을 중시하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미와 새롭고 독특하며 재미있는 패션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션의식은 사복에만 그치지 않고 교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이었고 교복 불만족의 이유는 교복 디자인이 촌스럽거나 개성이 없고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되는 교복 디자인과 현재 입혀지고 있는 교복 디자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입혀지고 있는 교복들에 유행에 따른 약간의 변화를 가미함으로써 학생들의 욕구가 충족된 세련된 디자인의 교복 착용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욕구와 교복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정하고 세련되며 활동성을 겸비한 교복 디자인을 위해 'neat & cheerful'을 테마로 한 춘·추·동복, 하복의 여고생 교복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학생들은 세련성, 활동성 및 개성이 가미된 디자인의 교복을 원하고 있으나 교복의 특수성으로 제약되는 기본적인 몇 가지의 문제 즉, 정장일 것, 단정할 것, 색상과 디자인이 무난할 것, 가격이 저렴할 것 등의 범위 내에서 교복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제약점이 있어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욕구를 최대한 고려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YMCA, 교복 불러주기 캠페인 및 행사 개최, 1999. <http://nader.consumernet.or.kr/>
- 2) 정충량, 이화80년사, 이대출판사, 1967, pp. 77-78.
- 3) 조규화, 韓國 패션에 나타난 美意識,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 1997, p. 2.
- 4) 앞 글.
- 5) 배화여자중고등학교, 배화70년사, 배화여자중고등학교, 1968.
- 6) 오덕렬, 제 5 공화국 교육치적, 문교행정 통권 62호, 1982, pp. 42-44.
- 7) 이수희,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18.
- 8) 제일프리패스, 학생복시장의 흐름, 1996. <http://kyobok.i1.co.kr/>
- 9)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교복” 항목, 1996.
- 10) 김명학, 나. 일본 여고생, 이채, 1999, pp. 30-31.
- 11) 앞 글. pp. 33-35.
- 12) 이인자 · 이경희 · 신호정, 의상심리, 교문사, 2001, pp. 286-287.
- 13) 앞 글. p. 292.
- 14) 박정숙, 한국 청소년의 패션의식에 관한 연구-1980년대 학생잡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10-15.
- 15) 도현심,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문화,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 · 정서 발달, 2001 가정문화운동 심포지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인간생활연구소, 2001, pp. 12-15.
- 16) 베이비 부머(baby boomer): 미(美) 베이비붐 세대 즉,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 17) 베이비 버스트(baby bust): 출생률의 급락.
- 18) 이인자 · 이경희 · 신호정, 2001, p. 294.
- 19) 조규화, 서울시내 여중고생의 화장품, 두솔출판사, 2000, p. 12.
- 20) Kyu Hwa Cho, Fashion Consciousness & New Generation in Korea, The 13th International Costume Symposium, 1994, p. 31.
- 21) <http://www.elitebasic.co.kr/>
- 22) 앞 글.
- 23) <http://www.ivyclub.com/>
- 24) 앞 글.
- 25) <http://www.sksmart.com>
- 26) 조진숙, 교복디자인 개발 연구-여고생 추동복 교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박영애,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정희, 여고생의 교복착용 태도와 의복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해경,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7)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0-R, 2000, 10. p. 40.
- 28) 이명희,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과 의생활 문화, 2001 가정문화운동 심포지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2001, p. 40.

- 29) 박영애, 1997, p. 77.
30) 인터뷰, 아이비(IVY) 학생복 관계자, 2001. 10. 16.
31) 앞 글.
32) 앞 글.
33) 조진숙, 1990, p. 48.
34) 인터뷰, 2001. 10. 16.
35) 박정희, 1998, p. 48.
- 36) 박영애, 1997, p. 55.
37) 박정희, 1998, p. 48.
38) 이명희, 2001, p. 40.
39) 조진숙, 1990, p. 49.
40) 인터뷰, 엘리트(ELITE) 학생복 관계자, 2001. 10. 9.
-
- (2002년 10월 11일 접수, 2002년 10월 31일 채택)